

#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 : 배경, 의도, 귀결\*

신 종 대\*\*

## 요약

이 논문은 1975년 김일성의 북경 방문이 한반도의 무력통일 도모보다는 인도차이나 공산화의 파장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으나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반명제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인도차이나 공산화로 인해 ‘남조선혁명’ 재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인식을 가졌던 것은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이공 함락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남한의 안보위협 고조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는 남북 간 상호 위협인식(mutual threat perception)의 계기였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 호전적 발언 등 위기조성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동맹 강화 노력이 도리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촉진하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와 남한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의 위협인식을 고조시키는 상생작용을 벌였다. 이처럼 남북한 상호 위협인식과 남북한 각기의 동맹 강화 시도 속에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주제어:** 김일성, 북경 방문, 인도차이나 공산화, 동맹 강화, 위협인식

\* 이 글은 2018년 11월 16일 미국 우드로우일슨센터-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워크숍(Workshop on Contemporary Korean History)에서 발표된 “Kim Il Sung’s Visit to Beijing, 1975”를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본 연구는 2019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중요한 지적을 해 준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shinjd@kyungnam.ac.kr

## I. 머리말

1975년 4월 프놈펜 및 사이공 함락 등 인도차이나 공산화로 북한은 베트남혁명에 고무되었던 반면, 남한은 한반도에서 베트남혁명의 재연 가능성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프놈펜 함락 직후와 사이공 함락 직전 북경을 방문하여 한반도에서 혁명이 일어날 경우 방관하지 않겠다는 점과 중국의 대북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은 어떤 배경과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그 귀결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이 글의 질문이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이 글은 김일성의 북경 방문은 프놈펜 함락과 사이공의 패색에 고무된 한반도의 무력통일 도모보다는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으나,<sup>1)</sup>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강화를 초래하는 반명제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1975년 들어 인도차이나사태는 중대한 전환을 맞았다. 4월 중순 중

---

1) 김일성은 사이공 함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중국이 지원하는 크메르루주(Khmer Rouge) 군이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을 함락시킨 다음 날인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북경을 방문했다. 프놈펜 함락에는 중국의 지원, 사이공 함락에는 소련의 지원이 있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에는 전략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었고, 이와 관련 중국과 소련 간에도 견제와 대립이 있었다(Qiang 2000). 당시 김일성은 프놈펜 함락에 고무되어 북경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원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피상적인 관찰로 보인다. 본문에서 상론하겠지만 김일성으로서는 중국이 폴 포트(Pol Pot)에게 보여주었던 대폭 지원과 비견되는 대북 안보 공약을 과연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성사 배경에는 이러한 북-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다. 중국이 4월 19-27일 벨기에 수상의 중국 공식방문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공식방문 요청을 수락한데에는 모스크바-하노이 못지않은 베이징-평양-프놈펜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김일성은 중소 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경 방문에 이어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방중 요청에 대한 중국의 호의에 비해 소련은 김일성의 방소 타진을 별반 반기지 않았고 일정 조정조차 거부함으로써 김일성을 분노케 했다. 김일성은 베이징 방문에 이어 동유럽 순방길에 올랐지만 모스크바에 대한 불만 표시로 의도적으로 모스크바에 들리지 않았다(Balazs Szalontai and Sergey Radchenko 2006, 52-53; 최명해 2009, 314-315; Oberdorfer and Carlin 2014, 51).

국이 지원하는 크메르 루주(Khmer Rouge) 군이 프놈펜을 함락시켜 캄보디아를 공산화했다. 1975년 초부터 공세를 강화한 북베트남은 4월 하순 사이공을 함락시켰다. 당시 남한은 인도차이나사태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김일성의 북경 방문 행보에 대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으로 국민총화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이공 함락을 계기로 북한은 대남혁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반면, 남한은 한반도에서 베트남혁명 재연에 대한 우려로 안보위협에 직면했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김형아 2005, 265-268; Armstrong 2013, 204). 또한 그 당시 실제로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김동성 1995, 244; 오진용 2004, 55).

그러나 이 글에서는 프놈펜 함락과 사이공 함락으로 북한의 혁명적 열정주의가 고조되고 ‘남조선혁명’ 재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위협인식이 더욱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당시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방어전략’에 균형(external balancing)을 맞추기 위해 중국과의 유대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sup>2)</sup> 그리고 북한은 베트남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기실은 그 지속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증강 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남베트남 공산화는 비단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는 남북 간 상호위협인식(mutual threat perception)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김일성의 북경 방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나 연구

2)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Comrade Everhartz with the Head of Department II in the DPRK Foreign Ministry, Comrade Choe Sang-muk, on 7 May 1975 about the Visit by Comrade Kim Il Sung to the PR China,” 1975.05.12, <http://www.wilsoncenter.org/nkidp>.

물은 거의 전무하다.<sup>3)</sup> 이 글에서는 동구권<sup>4)</sup>과 미국, 그리고 한국<sup>5)</sup>의 외교사료 등을 활용하여, 김일성의 북경 방문의 배경과 의도, 그리고 그 귀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II. 1975년 4월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배경과 의도

북한은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김일성은 사이공의 함락이 임박한 시점에서 왜 북경을 방문했는가? 우선 북한이 사실은 베트남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그 지속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증강 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더불어 미군과 한국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했으나 북베트남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미군이 남베트남에 다시 배치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베트남 전 종결 시 베트남에 집중된 바 있었던 미군의 한반도 증강 배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Ostermann and Person 2011, 638).

베트남에서 미 제국주의와의 전쟁 지속이라는 상황은 북한 국내적

3) 김일성의 북경 방문을 단편적으로나마 논의한 글로는 선즈화(2017, 875-883), 오진용(2004, 54-62), 최명해(2009, 311-318), 히라이와 슌지(2013, 231-233), Schaefer (2010) 등 참조.

4) 예컨대 Report from the GDR Foreign Ministry,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1975.04.29, <http://www.wilsoncenter.org/nkidp> 등 이하에서 인용하는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NKIDP(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의 동구권 자료는 요긴하다([www.wilsoncenter.org/nkidp](http://www.wilsoncenter.org/nkidp) 참조). 그 외 IFES-UNKS 북한아카이브에서 입수 번역한 김일성의 북경 방문에 관한 헝가리문서들도 유용하다.

5)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 『중국-북한 관계 주요 자료집』 등의 외무부 문서와 “중공의 대 북외 지원내용정보,” 1975.06.25(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 EA0003515@0001 등의 해당 시기 대통령기록관 소장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으로도 미 제국주의의 침략성, 호전성, 그리고 위협을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실례였다. 따라서 북한은 베트남 전 종전을 위한 파리평화회의의 진전이 탐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사이공 함락 직후 조총련 인사들과의 담화에서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동남아세아에서 저들의 침략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초점을 남조선에 돌리고 있”<sup>6)</sup>다고 우려했다. 김일성은 해외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인도지나에서 쫓겨난 미제는 남조선에서도 쫓겨날까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연에서 우리 측을 향하여 대포를 걸어놓고 전쟁소동을 벌리고 있”<sup>7)</sup>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일조문화교류협회 인사들과 만나서도 “포드가 정권을 쥔 다음 다른 나라에 두고 있는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최근에 남조선 주둔 미군도 많이 늘었다.<sup>8)</sup> 이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징조”<sup>9)</sup>라고 했다.

그리고 1975년 4월 김일성의 북경 방문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세적 행보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인식의 발로이자 수세적인 동맹 강화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전투경험을 쌓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이 이미 철수 완료하여 남한으로 복귀한데다가 베트남 전 종결로 인한 한미의 안보 우려로 미군이 한반도에 증강 배치될 시 북한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 면에서 불리한 바, 무엇보다 중국과의 동맹 강화는 필요불가결 했다. 김일성은 북베트남의 공세가 본격화되고 남베트남 공산화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북경을 방문했다. 김일성은 김동규 부주석, 오진우

6) “총련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킬데 대하여(재일본조선인총후담과한 대화, 1975년 5월 5일),” 김일성(2004b: 102).

7) “시에라 레온신문 <<싼디 틀라쉬>> 주필부부와 한 담화(1975년 5월 11일),” 김일성(1985, 298)

8)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1974년 38,000명으로 감축되었다가 1975년 다시 42,000명으로 증원되었다(김일영·조성렬 2003, 90).

9)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일행과 한 담화(1975년 5월 17일),” 김일성(1985, 321).

인민군 총참모장, 박성철 정무원 부총리, 허담 외교부장, 계응태 무역부장, 정송남 대외경제사업부장, 오극열 인민군 공군사령관 등으로 구성된 당·정·군의 대표단을 이끌고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측은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 김일성과 대표단을 환대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모택동은 대표단을 접견하고 김일성과 환담했다. 방문 기간 동안 김일성은 입원 중이던 주은래를 병문안 하였고, 등소평과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등소평은 김일성의 남경 방문에도 동행했다.<sup>10)</sup> 김일성은 북경 도착 직후 오진우 총참모장을 대동하고 가진 모택동과의 회담<sup>11)</sup>에서 인도차이나사태를 상기시키며 한반도의 무력통일과 중국의 지원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택동은 의도적으로 탄전을 피우며 자신은 이제 늙고 쇠약해 “정치 얘기는 흥미 없으니 등소평과 얘기하라”고 하면서 한사코 김일성의 말문을 막았다(선즈화 2017, 879-880).<sup>12)</sup> 김일성은 18일 저녁 중국 인민대회당 연회와 19일 주은래를 병문안한 자리에서도 ‘한반도 무력통일 가능성 및 중국의 지원’을 강조했다. 등소평과 주은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진용 2004, 56-60; 최명해 2009, 315-317).

김일성은 4월 18일 중국 측이 주최한 연회에서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

10) 김일성의 북경 방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일정과 논의 내용, 북한 측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선즈화(2017, 875-881); 오진용(2004, 55-62); 『로동신문』 (1975/04/18 ~ 04/28) 참조.

11) 회담의 전문은 毛泽东会见朝鲜劳动党总书记(1975)에 나와 있다.

12) 김일성은 이후 등소평과의 대화에서 남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등소평은 그와 같은 방식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진용 2004, 56-58). 4월 26일 합의하고 28일 발표된 북중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강조되었다(『로동신문』, 1975/04/28). 연표 상 중국 측은 김일성이 표방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3대 원칙과 5대 방침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방했지만 방침은 한반도의 통일이 무력이 아닌 평화의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는 데 있다(Ostermann and Person 2011, 365-367, 377-378).

며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입니다.”<sup>13)</sup>라고 기업을 토했다. 가히 위협적 언사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다. 즉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 오늘 조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문제는 구경 남조선에서 모든 실권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sup>14)</sup>라고 말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선제적인 무력통일 의지의 피력보다는 일종의 ‘방어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김일성이 북경 방문 후인 1975년 6월 2~5일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지프코프(Todor Zhivkov) 공산당 서기장과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인도차이나 공산화 관련 북한의 정세 인식과 입장을 엿볼 수 있다:

13)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 단결은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된다(우리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차린 연회에서 한 연설, 1975년 4월 18일),” 김일성(2004b, 98); 『로동신문』(1975/04/19). 김일성은 앞서 1975년 2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도와달라고 하면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들이 그것을 구실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혁명적대사변으로 될 것입니다. … 멀지 않은 앞날에 혁명적대사변이 올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고) …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김일성 1985, 39-47).

14) 『로동신문』(1975/04/19);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PRC, “Summarized Evaluation of Kim Il Sung’s Visit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1975.05.06, <http://www.wilsoncenter.org/nkidp>. 한편 당시 김일성은 북경 방문 이전에도 대내적으로는 “하시라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바, 전쟁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대외적으로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도리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남조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김일성 2004a, 165-166). 그리고 김일성은 북경 방문 이후에도 외국 인사들에게 “미국이 남조선 주민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자꾸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미 수차에 걸쳐 남침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북남공동성명에도 명백히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김일성 1985, 359). 그러나 북경 방문에서는 유독 위협적 언사를 자제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서방 언론들은 베트남의 승리에 고무되어 북측이 남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와 미 국방장관은 계속해서 남조선에서 인도차이나 공산화와 같은 사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과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리고 남조선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였다. … 그래서 우리는 경계 태세와 전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 주한미군은 4,000명이 증원되어 42,000명에 이르고 있다. 인구 1,600만에 노동인력이 부족한 북에서는 젊은이들을 신병으로 보충·동원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장비 면에서도 미군은 우리에게 비해 우세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일성은) “북측은 남조선의 신민당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3,000명의 당원만을 가진 통혁당은 숫자 면에서 아직 취약하다. 때문에 통혁당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합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곧 지도부의 궤멸로 이어질 것인 바, 통혁당원들은 합법적인 야당의 당원으로 참여하여 거기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일성은)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외교를 포함한 평화적 방식과 군사적 수단이 그것이다. 북은 계속해서 첫 번째 방식에 전념해 왔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슬로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박정희의 국제적 고립, 그리고 남조선에서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 남조선의 지리적, 자연적 조건은 베트남과는 상당히 다르다. 남조선에는 베트남 인구의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같은 인접 지역이 없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우리 인민군대가 남조선에 진입할 경우 함정에 빠지고 포위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 남조선에는 게릴라전을 지속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없다. 그리고 적군이 강력한 상황에서 소규모 전투 부대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연유로 북은 군사적 방식으로 통일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up>15)</sup>

15) GDR Embassy Sofia to Hermann Axen, SED Politburo Member and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Letter and Translation of In

이처럼 김일성은 인도차이나 공산화를 전후로 혁명적 열기와 무력 통일에 고무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한에서의 게릴라전과 전쟁 불가의 조건을 역설하였으며, 남한에 의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sup>16)</sup> 당시 주중 베트남 외교관들도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남한에는 혁명 분위기, 혁명당, 게릴라 활동 등 3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sup>17)</sup> 주중

---

formation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Bulgarian Communist Party on talks between Todor Zhivkov and Kim Il Sung during the Visit of the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to Bulgaria from 2 to 5 June 1975,” 1975.06.18, <http://www.wilsoncenter.org/nkidp>.

- 16) 허담 외상과 김일성은 각각 1973년 7월과 1974년 10월에도 북한 주재 동구권국가 대사들과의 대화에서 “북은 전쟁할 뜻이 없고 남침할 의도가 없다. 또한 남조선에 혁명을 수출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소련과 중국 어느 쪽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GDR Embassy to DPRK Pyongyang,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Hungarian Ambassador to the DPRK, Comrade Dr. Taraba, on 19 July 1973 in the Hungarian Embassy,” 1973.07.23, <http://www.wilsoncenter.org/nkidp>; GDR Embassy to DPRK Pyongyang Political Department, “On Conversation with Comrade Pimenov, Counselor at USSR Embassy,” 1974.10.29, <http://www.wilsoncenter.org/nkidp>). 더욱이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68년 8월에도 김일성은 일본 공산당 대표단과 만나 “소련, 중국이 국내외 문제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뜻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남조선의 역량도 그럴 만큼 성숙되지 않았고, 게릴라 활동을 전개할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신윤석 2000, 55). 마치 불가리아의 지프코프 공산당 서기장에게 말한 내용을 그대로 연상케 한다. 1965년 3월에도 모택동이 베트남과 같이 남한에서의 게릴라 활동을 조직,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 북한은 여건 미 조성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소진철 2008, 108-109).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하여 무력통일의 불가함과 남한에서의 게릴라전에서 참담한 패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무력통일 불가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일견 모순되는 군사 모험주의적 발언과 호전적 행동을 보이는가? 이는 단순히 체제 내부 결속 차원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등과의 안보 공약 재확인 과 같은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1965년 3월의 모택동의 요청을 거절했던 김일성은 그 해 10월 한국전 참전 15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을 방문한 전 중국 인민지원군 최고사령관 양용(楊勇) 장군에게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남쪽과 겨뤄보고 싶다”면서 중국의 연루 우려를 자극시켰다(『조선일보』, 2013/10/24). 이는 베트남 전 와중에서 안보 우려를 느낀 북한 나름의 동맹 강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7) “김일성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1975.05.12, 생산번호: 49/1975(주중 헝가리인민

인도대사관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김일성의 북경 방문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는 근본적으로 다른바, 남한에는 정규군을 군사적으로 고립시킬 만한 게릴라 활동이 없고 정규군이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오히려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sup>18)</sup>

이렇게 볼 때 북경 방문 시 김일성의 무력통일 불사 발언은 중국과의 동맹 강화와 경제지원 추출을 위한 의도적 호전성 또는 계산된 위기조성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무력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력남침에 대한 중국의 연루 우려를 자극하여 안보 공약 재확인과 같은 북·중동맹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만약 중국이나 소련이 북한이 무력통일을 지향하는 호전성과 모험주의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중·소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는 급격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당시 상황에서 무력통일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중국과 소련 양국 모두 북한의 무력통일에 동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중국과 소련의 지원과 동참 없는 북한 단독의 무력통일 시도는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한이 무모한 시도를 한다면 중국과 소련은 강제적으로 연루될 공산이 컸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를 일정하게 결박(tethering)해 둘 필요가 있었다.

---

공화국 대사관), 접수번호: 002977-13/1975.05.26, IFES-UNKS 북한아카이브 분류번호: 30060-30066.

18) Indian Embassy to PRC Beijing, "Record regarding Kim Il Sung's visit in Beijing, 18-26 April 1975," 1975.04.26, <http://www.wilsoncenter.org/nkidp>. 1976년 2월 방한 중이던 세계적인 게릴라전 전문가 톰슨(Robert Thomson)도 '북한은 현 단계에서 남한 내에 조직이나 지원세력들의 바탕이 없어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국경선이 짧아 방위하기가 쉽고 밀림지대가 없어 침투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앞에서 본 김일성의 토로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동아일보』, 1976/02/24).

김일성이 이와 같은 위기조성전략 구사를 통한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도모했던 이유는 당시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방어전략’과 인도차이나사태의 급변으로 인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 및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의 경우에 대비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중반 미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 참전 경험이 있는 홀링스워스(James F. Hollingsworth) 중장을 한미연합 제1군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974년 기존의 유엔군 ‘방어전략’을 수정하여 남한 군을 공격부대로 전환시키는 ‘전진방어(forward defense)’ 전략을 도입했다. 그는 대규모 야포부대를 비무장지대 남쪽 최전방까지 북상시킴으로써 언제든지 북한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Oberdorfer and Carlin 2014, 49). 이러한 전진방어 전략은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고 9일 이내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24시간 동안 막강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B-52 폭격기의 지원을 비롯하여 한미 양국군의 엄청난 화력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김일영 외 2003, 91-92).

북한 또한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방어 전략에 대응하여 군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군사력 증강과 재배치 및 홀링스워스의 공격적인 전쟁계획에 대해 똑같은 전법으로 대응했다. 북한군은 증강된 병력을 휴전선 가까이 재배치했다(Oberdorfer and Carlin 2014, 50). 물론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방어 전략은 미중데탕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 취한 북·중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남북 양측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비증강에 몰두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더욱이 인도차이나사태의 급변은 북한의 위협인식을 일층 고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으로서는 북경 방문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의 정도와 범위를 재가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국의 연루 우려를 자극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군사 경제지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1970년대 초기 북한은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현대적 산업설비와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였다. 서구 선진국에 대한 수입의 상당 부분은 차관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을 위해 북한은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을 증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산업은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수입의 증가가 수출의 증가를 앞서 왔기 때문에 북한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였다. 무역적자의 누적은 외채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sup>19)</sup> 1970년대 중반 이래 발생한 외채문제의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북한과 서구 선진국과의 경제관계는 정체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최수영 1996, 268-283).

### Ⅲ. 북경 방문의 성과와 귀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경을 방문한 김일성은 ‘지금이야말로 북조선이 남조선을 쳐부수고 무력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호기’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군사지원을 요청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은래, 등소평 등 중국의 지도부는 다름 아닌 김일성 자신이 1972년 제안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언급하면서 평화통일과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대외사를 분명히 했다.<sup>20)</sup> 당시 중국은 흑 베트남이 라오

19) 김일성은 북경 방문 직후인 1975년 5월 5일 조총련 인사들과 만나 “일부 서방 언론들은 마치 내가 중국에 돈을 얻으려 간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한동안 외채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북측에 화물선이 많지 않아 수출과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방과의 무역에서 신용을 좀 잃었다”고 강변했다(김일성 2004b, 116).

20) Report from the GDR Foreign Ministry,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스와 캄보디아를 병합해서 ‘인도지나 대 연방’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사실 중국은 북베트남의 승리가 그리 반갑지 않았다(도미엔 2014, 103-105). 중국은 베트남에서 장기적이고 비결정적인 민족해방전쟁에 미군을 묶어놓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동일한 민족해방전쟁을 일으키도록 고무하고자 했다. 그러나 월맹은 전쟁의 목표를 통일에 두었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군을 축출하고자 했다(황병무 1987, 286). 중국은 자신이 지원했던 크메르루주 군이 프놈펜을 함락시킨 것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과는 소원한 반면 소련과 가까운 북베트남의 승리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곧 설명하겠지만 북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중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영향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소련 세력범위의 확장을 뜻하므로 이는 결코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한반도 무력 통일 시도는 중국에게 서남과 동북 지역에서의 분쟁에 동시 연루될 수 있다는 악몽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그럴 경우 데탕트를 추구하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도 파탄 나는 것이었다. 북한은 위와 같은 중국의 대소 전략적 이익과 급소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의도적으로 중국의 연루 우려를 자극시켰고, 반대급부로 동맹 강화를 도모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게 ‘무력통일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북한을 달래기 위해 경제·군사원조를 약속했다.<sup>21)</sup> 또한 남한과는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박정

---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1975.04.29, <http://www.wilsoncenter.org/nkidp>.

21) Report from the GDR Foreign Ministry, “On the Visit of a DPRK Party and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1975.04.29, <http://www.wilsoncenter.org/nkidp>. 주중 헝가리대사관의 본국 타전 전문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게 10억 달러의 원조와 군사원조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측은 4억 달러를 북한 측에 지원했고, 무기 등 군사지원도 공격 목적이 아닌 순수 방위 목적에 국한했다고 한다(“김일성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정보,” 1975.05.09, 생산번호: OO(주중 헝가리인민공화국 대사관), 접수번호: 002977-8/1975, IFES-UNKS 북한아카이브 분류번호: 30038; “김일성의 중화인민

희 정권을 고립시키는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sup>22)</sup> 중국의 태도는 소련의 냉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환대’였지만 김일성의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점에서 패색이 역력했던 사이공은 김일성의 귀국 직후인 4월 30일 마침내 함락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사이공이 급격히 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베트남 공산화에 그렇게 고무되지 않았다. 남베트남의 공산화와 무력통일 달성은 북한과 북베트남의 혁명성과를 현저하게 대비시키는, 북한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런 사태 전개였다(도미엔 2014, 102). 또한 김일성은 인도차이나에 미군을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다. 김일성은 남베트남 공산화 이후 이전에 베트남에 집중된 바 있었던 미군이 남한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아니면 최소한 주한미군 철수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조바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파리협정이나 사이공 함락에 대해 ‘차가운 침묵’만을 지켰던 것이다(히라이와 순지 2013, 187-188; Szalontai and Radchenko 2006, 12-13).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강화할 경우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에 대한 균형 도모가 필요불가결 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및 사이공 함락을 보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베트남혁명을 재연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3)</sup> 사실 박 대

---

공화국 방문,” 1975.05.12, 생산번호: 49/1975(주중 헝가리인민공화국 대사관), 접수번호: 002977-13/1975.05.26, IFES-UNKS 북한아카이브 분류번호: 30060-30066).

22)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Note concerning a Conversation between Ambassador Comrade Everhartz with the Head of Department II in the DPRK Foreign Ministry, Comrade Choe Sang-muk, on 7 May 1975 about the Visit by Comrade Kim Il Sung to the PR China,” 1975.05.12, <http://www.wilsoncenter.org/nkidp>.

23) 당시 한국 외무부에 재외공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북경 방문에 대해 보고된 전문들도 대체로 그와 같은 기조에 입각해 있었다. 예컨대 당시 주영대사가 타전한 전문에도 김일성의 북경 방문 목적이 무력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외채 상환을 위한 경제 지원 요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김일성 중공방문 및 한국안보에 관한 외

통령은 미군의 베트남 철수와 파리협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1971년 주한 미군 철수 이래 박 대통령과 박정희 정부의 고위인사들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에 대비한 핵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사이공 함락 사태는 이러한 기존의 불신을 일층 증폭시켰다. 때문에 박정희 정부는 안보위협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미 외교로 포드 행정부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포드 행정부는 사이공 함락에 고무된 북한이 대남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한 방위공약 준수와 주한 미군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군수 지원 및 한국군 현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및 사이공 함락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대내적으로 체제안보 조치를 취해 나갔다. 1975년 5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모든 정치적 비난을 금지시킨 긴급조치 9호를 공포했다. 이어 전시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치안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법(7.16), 17세부터 50세 사이의 모든 남자를 준 군사화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6.17), 그리고 방위세(6.27)를 신설했다. 75년 9월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과 교원으로 구성되는 전국중앙학도호국단 발족,

---

무성 견해.” 1975.05.02(주영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전문),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1 각국 반응)』. 다만 한국 외무부는 4월 26일자 북·중공동성명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김일성의 4월 18일 연설 중 혁명과 전쟁에 관한 일련의 연설이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중국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 북한에 의한 모험적 대남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김일성의 중공방문에 대한 종합보고,” 1975.05.02(외무부의 대통령보고 자료),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2 방문 결과 대통령 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무부는 (중국의 그와 같은 입장은 다소 무관하게) 김일성의 북경 방문 목적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숙의하고 중국 측의 가능한 제반 지원을 다짐받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김일성 중공방문(1975.4.18-4.26),” 1975.06.30?(외무부 정보문화국),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2 방문 결과 대통령 보고)』).

10월에는 대학 일반 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 또한 남한은 인도차이나 공산화를 배경으로 1971년 말부터 추진해오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선도했다. 미국 측의 핵우산에 대한 거둬진 보장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합택영 1998, 179).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은 이미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면 핵개발을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75년 8월 일단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밀하게 핵무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Choi 2014; Hong 2011 참조). 이와 더불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했다.<sup>24)</sup>

포드 행정부는 당시 박정희의 핵개발이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약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박정희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재편 중단과 안보 공약 준수 등 일련의 동맹 강화 조치가 필요했다. 미국은 박정희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틴스피리트와 같은 합동군사 훈련을 마련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월남에서의 철수로 대미협상에서 ‘파병 카드’가 사라진 조건에서, 김일성의 북경 방문과 사이공 함락 등 안보불안 상황을 ‘핵개발 카드’와 연결시켜 포드 행정부의 안보 공약 강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sup>25)</sup> 한편 중국도 이 시기에 미국과 데탕트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군사

24) 그리하여 마침내 1978년 9월 ‘백곰(NHK-1)’으로 명명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심용택 2013 참조).

25) 김수광(2008, 328-338)은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포드 행정부와 박 대통령 간의 핵개발 갈등은 크지 않았으며, 포드 행정부는 박 대통령의 핵개발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안보 공약 철회와 같은 강력한 위협보다는 박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을 자제하면서 설득과 대화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했다고 지적한다.

원조를 늘렸다(Xia and Shen 2014, 1083-1113).

이와 같이 당시 남북한 모두가 남베트남 공산화에 대해 위협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위협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각기의 균형 노력이 상대의 위협인식을 더욱 고조시키는(Ostermann and Person 2011, 638, 659) 안보딜레마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남북의 군비경쟁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급기야 남북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한 박정희 정부의 방위세 부과는 ‘올곡 사업’이라는 암호명을 지닌 야심찬 전력증강계획(1974~1981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1965~1975년 사이 군비 지출에서 앞서 있었으나, 1976년 이후 남한의 군비 지출이 북한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함택영 1998, 291-300; 2013, 215-218).

한편 김일성은 1975년 북경 방문을 통해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의 ‘한계선’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북·중간의 공동성명은 화려한 수사를 건어내면 중국이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 곧 무력통일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26)</sup>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경제·군사지원을 약속받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크메르루주의 폴 포트에게 보여주었던 전폭적인 지원과 비견될 수 있는 대북 안보 공약을 확약 받지 못했다. 북한은 1975년 유엔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그 여세를 몰아 유엔사(UNC: United Nations Command)의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이 한미에 의한 전쟁도발 책동이라고 비난한 틴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의 위협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 간의 방위공약 재확인 과 북한에 대한 경고가 거꾸로 북한이 가졌던 기왕의 위협인식을 더욱

26)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PRC, “Summarized Evaluation of Kim Il Sung’s Visit to the PR China from 18 to 26 April 1975,” 1975.05.06, <http://www.wilsoncenter.org/nkidp>.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북한으로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지지와 보호막이 필요했다.

그러나 1974년 3월 북한이 북경을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접고 워싱턴으로 직행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했고, 또 외화내빈의 북경 방문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북·중 관계는 그리 돈독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경제지원도 당초 북한의 기대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1976년 북·중 관계는 다시 정체상태에 빠졌다.<sup>27)</sup> 1976년 판문점도끼사건이 중국의 연루 우려까지도 염두에 둔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이었는지는 불명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 측의 싸늘한 반응으로 결국 김일성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가용한 자료 범위 내에서 1975년 4월 김일성의 북경 방문이 어떤 배경과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동 방문이 남한의 위협인식을 어떻게 자극했으며, 남북한의 동맹 강화 행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것은 인도차이나 공산화에 대해 남한만이 아니라 왜 북한도 위협인식을 느꼈으며, 위협인식을 완화하기 위한 김일성의 북경 방문이 어떻게 공세적 행보로 번역되어 한미동맹 강화라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베트남 전 종전으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와 주한 미군 철수 차질을 우려했고,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 중국의 연루 우려를 자극하여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의도했던

27) Report from the GDR Embassy in the DPRK, “On Relations between DPRK and PRC,” 1977.11.17, <http://www.wilsoncenter.org/nkidp>.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호전적 발언 등 위기조성전략이 도리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강화를 촉진하는 반명제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 강화와 남한의 방위력 증강이 북한의 위협인식 고조와 상승작용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각기 남북한의 현상다파 가능성을 저지·관리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역설적이게도 남북한의 동맹 강화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 상호 위협 인식과 남북한 각기의 동맹 강화 시도 속에 남북한의 적대와 대립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당시 남북한은 현실주의자들의 진단처럼 상호불신 속 각기의 안보추구가 결국은 각기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안보딜레마 상황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실제 상호 간에 위협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위협’에만 주목하여 정작 자신이 상대에게 ‘가하는 위협’에는 둔감했다. 요컨대 프놈펜 함락, 김일성의 북경 방문, 사이공 함락, 한미 간 안보 공약 재 강화 등 1975년에 전개된 일련의 사태가 낳은 남북한의 안보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미중데탕트와 일시 공조하던 한반도의 미니데탕트는 1976년 8월 판문점도끼사건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1975년 김일성의 북경 방문은 인도차이나 공산화에 고무된 한반도 무력통일 도모보다는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무력통일 도모를 포기했거나 1975년 당시까지도 여전히 그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고, 오히려 베트남 전 종결이 가져 올 한반도 군사력 불균형에 대한 균형 도모를 위해 북경 방문길에 나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의 주장이 반대되는 시각에 대한 치밀하고 충분한 비판적 검토와 논박을 통해 논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열려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지닌 시론적 연구의 한계가 향후 보다 체계적

이고 진전된 연구에 의해 조속히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투 고 일: 2020년 1월 8일

심 사 완 료 일: 2020년 2월 24일

게 재 확 정 일: 2020년 2월 24일

## 참고문헌

- 김동성. 1995. “북한의 대중국정책.” 양성철·강성학 공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 김동조. 2000. 『냉전시대의 우리외교』. 서울: 문화일보.
- 김수광. 2008 “닉슨-포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연구: 한국방위의 한국화 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일성. 1985. 『김일성저작집 30 (1975.1-1975.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4a. 『김일성전집 56 (1974.11-1975.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2004b. 『김일성전집 57 (1975.4-1975.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영·조성렬. 2003.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 김형아 저·신명주 역.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 서울: 일조각.
- 도미엔. 2014. “1975년 베트남 전 종전과 북한정부의 대응: 베트남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48.
- 북한연구소. 1975. “긴급 특집 인지사태. 김일성북경방문. 한국안보: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 요인 분석.” 『북한』 42.
- 선즈화 저·김동길 외 역. 2017. 『최후의 천조: 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서울: 선인.

- 소진철. 2008. “북한 김일성의 1966년 발언록.” 『외교』 86.
- 신윤석. 2000. “조선로동당과 일본공산당의 관계변화 연구: 1950-1970년대를 중심으로.”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용택. 2013.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비화』. 서울: 기파랑.
- 오진용. 2004.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파주: 나남.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 최수영. 1996. “남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함택영. 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 \_\_\_\_\_. 2013. “핵 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장달중 편. 『현대북한학강의』. 서울: 사회평론.
- 허중호.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황병무. 1987. “베트남과 중공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
- 히라이와 슌지 저·이중국 역. 2013.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서울: 선인.
- 대통령비서실. 1975. 대통령기록관.
- 외무부.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1 각국 반응)』. 등록번호: 8266(4624).
- \_\_\_\_\_.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2 방문 결과 대통령 보고)』. 등록번호: 8267(4625).
- \_\_\_\_\_. 『김일성 북한 주석 중국(구 중공) 방문, 1975.4.18-26, 전 3권(V.3 자료집)』. 등록번호: 8268(11317).
- \_\_\_\_\_. 『중국·북한 관계 주요자료집』 (집무자료, 1990.2).

『동아일보』.

『로동신문』.

『조선일보』.

毛泽东会见朝鲜劳动党总书记. 1975. “共和国主席金日成谈话记录(1975.04.18.)” 外交部编. 『毛泽东接见外宾谈话记录汇编』 第19册, 第17-26页.

Armstrong, Charles K. 2013. *Tyranny of the Weak*.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Choi, Lyong. 2014. “The First Nucle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1975-76.” *Cold War History* 14(1).

Hong, Sung Gul. 2011. “The Search for Deterrence: Park’s Nuclear Option.” Byung-Kook Kim and Ezra F. Vogel eds.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berdorfer, Don and Carlin, Robert. 2014.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Ostermann, Christian F. and Person, James F. eds. 2011. *After Detente: The Korean Peninsula 1973-1976* (Document Reade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Woodrow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Qiang, Zhai. 2000. *China & the Vietnam War, 1950-1975*.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Schaefer, Bernd. 2010. “Overconfidence Shattered: North Korean Unification Policy, 1971-1975.” *NKIDP Working Paper 2*.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zalontai, Balazs and Radchenko, Sergey. 2006.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Evidence from

Russian and Hungarian Archive.” *CWIHP Working Paper* 5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Xia, Yafeng and Shen, Zhihua. 2014, “China’s Last Ally: Beijing’s Policy toward North Korea during the U.S.-China Rapprochement, 1970-1975.” *Diplomatic History* 38(5).

NKIDP, <http://www.wilsoncenter.org/nkidp>.

Abstract

---

Kim Il Sung's Visit to Beijing during the  
Communization of Indochina in 1975  
: Its Backdrop, Intentions, and Consequences

Shin, Jongda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far from being encouraged by the fall of Phnom Penh and Saigon, Kim Il Sung visited Beijing in 1975 not with the hope of bringing about the violen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rather to reaffirm China's security commitment to the country. Ultimately, however, Kim Il Sung's visit to Beijing l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 defense commitment toward South Korea. This article takes the view that the communization of Indochina further raised North Korea's perceptions of a threat to its security. North Korea was not hoping for the end of the Vietnam War but rather the continuation of that war. This was because North Korea was concerned th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would lead to the redeployment of American troops on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rupt its own plans for withdrawal of American troops in South Korea.

**Keywords:** Kim Il Sung, visit to Beijing, communization of Indochina, reaffirmation of security commitment, threat perception